

바닷물로 기른 양파...‘해수농법’ 떴다

“농약대신 바닷물을 기른 친환경 양파입니다”

신안군 지도읍 양파재배 농가에서는 4~5월에 양파줄기가 염지순간 타죽기만 할 때 농약대신 바닷물을 뿐입니다. 10a(300평)당 바닷물 200~300ℓ를 2~5회 살포해 양파재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노균병을 없애고 잡초발생을 막는 효과를 거뒀다.

노균병은 양파줄기에서 곰팡이가 습면서 말라죽는 병이다.

신안지역은 지난 2007년부터 양파 주산지인 지도읍을 중심으로 해수 농법이 보급돼 300여 농가가 활용하고 있다. 그동안 양파재배 농민들은 노균병 농약비로 10a당 4만원 가량을 썼지만 바닷물을 이용해 방제하며 생산비 절감효과까지 거두고 있다.

신안 300 농가 활용...노균병·잡초발생 억제

무화과 오이 등 농약 안써 생산비 절감 효과

양파, 무화과, 오이, 호박, 토마토 등 작물에 바닷물을 적당한 비율로 뿐만 아니라 농작물의 병해를 방제하고 품질을 향상시키는 ‘해수(海水) 농법’이 관심을 끌고 있다.

전남도 농업기술원은 바닷물을 이용한 농작물 생산연구 등 과학적인 규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신안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8월부터 내년 6월까지 양파수확기까지 ‘바닷물을 이용해 채소류 병해방제효과’ 실증시험을 실시한다.

도 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에서 지난 2006·2007년 무화과에 30% 희석한 바닷물을 뿐만 아니라 연구한 결과 당도가 14.3브릭스(Bx)에서 15브릭스로 향상되고, 수확량은 10a당 2천506kg으로 바닷물을 뿐만 아니라 품질향상 효과와 겹친다. 토양의 이화학성 및 물리성, 병원성 미생물의 생장억제 효과 등을 조사하게 된다.

전남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작물별로 해수농법의 장·단점을 분석해 과학적인 데이터가 마련되면 획기적인 친환경 농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방제하고 있다.

도 농업기술원 친환경연구소는 다음주 초까지 각 시·군의 해수농법이 용농가의 실태와 작물현황을 조사·분석해 본격적인 연구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한후 일반 농산물과 바닷물을 이용한 농산물의 비교·연구를 통해 바닷물을의 농도와 처리시기, 희수 등 과제류 생산성 및 품질향상 효과와 겹친다. 토양의 이화학성 및 물리성, 병원성 미생물의 생장억제 효과 등을 조사하게 된다.

전남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작물별로 해수농법의 장·단점을 분석해 과학적인 데이터가 마련되면 획기적인 친환경 농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기자 song@신안=조원남기자 wncho@

사천저수지 수질개선 총력

진도농어촌공 녹조방제 훈련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지사장 김형용)는 지난 22일 의신면 사천리에 위치한 사천저수지에서 녹조방제 훈련을 실시했다.

공사직원과 수질관리협의회 회원,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훈련은 저수지 부영양화에 따른 녹조류 발생과 수질오염 등에 대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녹조발생 상황을 가정해 고성능 살분무기를 이용, 녹조 제거를 저수지 수면에 살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목포별원’ 복원

문화센터 변경 오늘 개관

목포시는 지역 최초의 일본식 불교사원으로 2007년 ‘등록문화재 340호’로 지정된 옛 동봉원사(東本願寺) 목포별원(木浦別院)을 복원했다.

시는 복원한 목포별원 명칭을 ‘오거리 문화센터’로 변경하고, 25일 개관식과 함께 돌 조각과 40여명의 대표적인 작품 전시회를 열 계획이다.

목포별원의 복원에는 국비 등 모두 38억원이 들었으며 2천49㎡ 부지에 전시, 공연을 할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과 주차장, 관리동 등이 조성됐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남도의 美, 아는만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최근 진도군 의신면 운림산방을 찾은 관광객들은 문화관광해설기의 설명을 듣고 있다. 진도군은 지난 6월부터 희망근로 지역특색 사업으로 진도를 방문하는 모든 단체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관광 해설 안내 서비스’를 제공, 호응을 얻고 있다.

〈진도군 제공〉

갈매기의 ‘飛上’

신안 군상징물로 매립장 단장 눈길



신안군이 1999년 전국 최초로 건설한 ‘지붕 있는 쓰레기 매립장’ 지붕 위를 갈매기 벽화로 단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24일 신안군에 따르면 안좌면을 비롯해 중도 등 14개 읍·면에 지붕을 씌운 매립장을 만들고, 향로 가시권에 있는 안좌와 흑산면 매립장 지붕 위에 군 상징물인 갈매기 벽화를 40×9m 크기로 그렸다.

특히 증도면 매립장 주변은 ‘슬로시티’ 친환경 농업 지구로 농업과 달팽이가 친환경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홍보하고 관광객에게 불거리를 제공하고자 황금색 달팽이를 그렸다.

갈매기는 신안군의 군조(郡鳥)이며, 달팽이는 슬로시티 상징 마크다.

/신안=조원남기자 wncho@

“목포 도심 곳곳 ‘산소 길’ 열어요”

市, 사회약자 위한 웨빙 산책로 지속 개설

목포시가 웨빙시대를 맞아 시민들과 노약자·장애인·임산부 등을 위한 산책로를 지속적으로 개설한

성 포장길, 동명동 물양장 산책로, 중·소 삼화도 산책로, 연동광장~버스터미널까지 폐선부지 웨빙공원 등 산책로가 활성화되고 있다.

목포시는 지난 민선 3·4기 동안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산책로 조성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18개소 25.8km에 이르는 산책로를 조성했다.

원도심권에는 북항 원총녹지지 대 산책로, 유달로와 해안로의 탄

이 이용하는 원총녹지대와 공원지역 산책로 주변에는 파크 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등을 설치해 페적하고 편안한 생활체육공간으로 활성화하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노인층, 임산부,장애인 등 사회약자들을 위해 양을산 터널위 체육공원(민턴장)에서 쉼터(주간도로 정자 설치 장소)까지 1천m 코스에 대해 등산로로 노면정비와 노족확대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유달산공원 경관 특화 CI 만든다

목포시, 경관 디자인 최종 보고회

목포 유달산 공원이 특화된 경관디자인으로 꾸며진다.

목포시는 지난 24일 시청 상황실에서 ‘유달산공원 관광특화 경관디자인’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목포시는 지식경제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시행한 공공디자인 개발사업 전국공모에서 우수디자인으로 선정됨에 따라 지난해에 국비 1억 원을 지원받아 이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최종보고회를 통해 유달산 공원의 특화 브랜드 개발과 경관디자인을 위해 CI개발, 시설물 디자인, 공간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시는 경관협성의 경우 ▲과장된 디자인을 지양하고 유달산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색채와 외관 ▲석재를 주재 등 10가지 기본 원칙을 정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수려한 경치를 만끽하고 휴양하는 체류형 관광자원화에 초점을 맞췄다”며 “지역 브랜드로 특화되면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진도 홍주 추석 마케팅 수도권 ‘공략’

郡, 서울 강남·강서 고층빌딩 LED 전광판 홍보

진도군이 추석명절을 맞아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전통명주인 진도홍주의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친다.

진도군은 “소비층 저변확대와 관광객 강화를 위해 대도시 LED 전광판 광고를 실시, 대한민국 인구 30%가 거주하는 수도권 지역을 집중 공략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군은 진도홍주 러비콘의 마케팅을 위해 하루 평균 80여만명의 유동인구로 광고효과가 높은 서울 강남과 강서 지역의 고층빌딩 LED 전광판을 활용, 추석 전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수도권 지역을 집중 공략, 대한민국 국민주로서 입지 강화와 7월 7일 진도홍주의 날을 전 국민에게 알리는 ‘77 Day’ 마케팅을 통한 진도홍주의 이미지를 높이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현재 진도홍주는 해외 바이어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미국과 캐나다·중국·일본·가나 등 5개국에 수출중이다.

진도홍주 신협력사업소 관계자는 “추석 명절에 판매가 급증해 전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술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진도홍주는 고려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통 민속주(증류주)로 진도산 쌀과 지초가 만나 맛·색·향 등 삼박자를 고루 갖추고 있으며, 진도군에서만 전승·제조되고 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대인동삼일부동산

☎ (02) 223-1140, 5210 월 011-602-2532
(광주은행 신도로점, 대인동 소방서건물)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설분

상가 전문소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절
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
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
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

칸 정도에 점포가 여려번인
상가를 대표적인 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

기업체인 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상무랜드 공인중개사

F: 383-5221 H: 011-609-5221
(이바돌김자랑 1층)

●별당임대, 투자용)

• 토지 590평/건물 4,500평(예가 210억)
보증금 100억/월세 5,000만원

• 토지 590평 건물 750평(예가 98억)
보증금 40억/월세 2,000만원 웃자 12억

• 토지 300평 건물 725평(예가 33억)
보증금 9억/월세 1,500만원

• 토 재(상가주구 상업지역)

(회사사무, 병원, 학원, 기타부지 등)
• 1,000평(업무용지)-예가 평당 750만원

• 250평(유동가능)-예가 평당 1,200만원

• 50평(임무상업)-예가 평당 1,200만원

• 136평(유동가능)-예가 평당 950만원

• 기타용도

(농장, 동산등) 약 2천2천평 평당 10만원

• (녹지) 삼각동 약 3,000평 평당 300만원
고려고주원(마트, 은행장 등 적합)

• 호텔, 모텔 등 투자 하실 분 상당환영

• 부지의 10% 이상 보장

• 상가 매매(상가주구, 상업역세권)

• 상가 150평(9층)-예가 평당 450만원
개별등기 있음.

• 학원, 복지시설, 사무실 등 적합

• 세대가을롯데 주변 역세권상가 있음

• 대형 의류매장 가능 상가 전화상점 환영

맞춤주문 빙수입니다.

원하시는 물건 찾으 드리며,

점심하실 물건 팔아 드리겠습니다.

아무 때나 전화 주십시오.

금호부동산컨설팅

급 매 부 동 산 전 문

• 아파트(급매 매물)

광주 문흥동 아파트 32평(총15/12층, 가격 1억1천만) 매 8천5백만원

광주 신천동 아파트 35평(총22/20층, 가격 1